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0, pp. 293-302,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10.293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현영[1], 서현아[2*], 엄세진[3]
[1]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2]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3]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전공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Hyun-Young Kang[1], Hyun-Ah Seo[2*], Se-Jin Eom[3]
[1]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1 University
[2]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3]Dept. of Child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을 알아본 후, 각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더불어 예비유아교사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312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후,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전체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유아교육, 예비유아교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three variables; and lastly, found out the relative influence of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heir 'teaching efficacy'. 312 pre-service teac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questionnaires using research instruments of each of those three variables. The finding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cored high on the anger-expression, were scored low 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and those pre-service teachers, scored high on the ego-resilience, were scored high on their teaching efficacy.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b-factors' in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affected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efficacy.

Key Words : Anger-expression, self-resilience, teaching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1. 서론

유아교육과정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상급학교기관과 달리 유아교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많은 결정을 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유아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 개인이 가진 능력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Seo (shyna@ks.ac.kr)
Received June 15, 2018
Revised October 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과 신념 정도는 유아교육의 질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1]. 교사가 자신의 교수 및 수업에 대해 가지는 신념인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개인 심리적 변인인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은 최근 유아교육의 질과 교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분노표현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분노표현,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적응능력인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의 세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분노표현, 회복탄력성 변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교사양성프로그램 및 교직이수과정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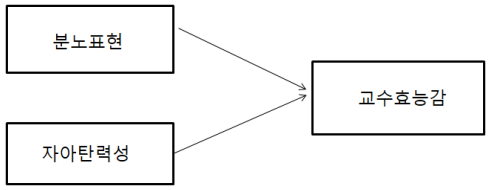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2. 이론적 배경

2.1 교수효능감

유아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수효능감은 자기효능감 개념을 교직이라는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2],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교사자신의 수업과 교수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뜻한다[3].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목표 지향적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이며 끈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힘과 열정을 적용하는 교직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4].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교수행위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교사효능감 증진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5-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8]; 또한 교사효능감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사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9].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사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습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10]. 교사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만족에 관련된 연구이거나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유아교사의 정서적 측면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2 분노표현

유아교사가 역할수행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과 갈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감정이 생길 수 있다. Spielberger 등[11]은 분노표현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감정을 억누르는 분노억제(anger-in), 분노대상에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분노를 표현하는 분노표출(anger-out), 분노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분노조절(anger-control)이 그것이다. 분노표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의 순기능인 분노조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12], 분노표현에 따라 우울감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분노억제 또는 분노표출행동이 많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았고, 분노조절행동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고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에서는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13]. 즉, 이는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효능감이 낮고, 분노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효능감이 높음을 시사하였다[14].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타인이나 자신을 향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면 자신의 심신에 손상을 입힐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5]. 이를 통해 볼 때 교수효능감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사가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교사효능감과 정서조절 및 분노표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예비유아교사 집단은 교사효능감이 낮은 예비유아교사 집단에 비해, 분노조절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분노억제는 적게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으나[16], 지금까지 유아교사의 분노표현 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주 적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3 자아탄력성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또 하나의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17]이라 볼 수 있으며, 내부와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능력이자 자아통제력이라고 정의하였다 [18-19]. 즉, 자아탄력성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20].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축적되어 교사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감소와 보육효능감을 증진시켜 교사민감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이라고 하였다[23].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교사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켜 행복감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24].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낙천성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통해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스스로의 통제수준을 변화시킴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25]. 영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보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26];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 교사효능감, 교수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교수행위에 몰입하여 교수몰입이 높아지는 것이 나타났다[27].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및 교사효능감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352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352부 중 32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3.2%를 나타내었으며, 동의서가 누락된 설문지 11부와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최종 312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properties (background) of participants

Properties	Categories	*f* (*N*)	(%)
Age	under 18 years old	39	12.5
	19 years old	40	12.8
	20 years old	122	39.1
	21 years old	68	21.8
	22 years old	29	9.3
	over 23 years old	14	4.5
Education level	3-year education program (Associate Degree)	137	43.9
	4-year education program (Undergraduate Degree)	175	56.1
Year in school	Freshman (1st year)	39	12.5
	Sophomore (2nd year)	51	16.3
	Junior (3rd year)	150	48.1
	Senior (4th year)	72	23.1
Total		312	100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 연령은 20세가 122명(39.1%), 21세 68명(21.8%), 19세 40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150명(48.1%), 4학년 72명(23.1%), 2학년 51명(16.3%), 1학년 39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도구

3.2.1 분노표현 척도

분노표현 척도는 Spielberger 등[11]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rate-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Han 등[29]이 한국판으로 개발한 상태-특성 표현 척도(STAXI: Korea Version)를 사용하였다. 분노의 표현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 등 3개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안에서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요인명, 문항 수 및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Anger expression'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Sub-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 α
Anger-out	8	2, 7*, 9*, 12*, 14*, 19*, 22*, 23	.82
Anger-in	8	3*, 5*, 6*, 10*, 13*, 16, 17*, 21*	.79
Anger-control	8	1, 4, 8, 11, 15, 18, 20, 24	.70
Total	24		.73

Reverse-scored items*

3.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30]이 개발하고 Min[25]이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안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요인명,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 Table 3와 같다.

Table 3.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Ego-resilience'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Sub-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 α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7	1, 4 , 8, 12, 16, 18, 20	.85
Control of emotions	8	2, 5, 7, 9, 11, 13, 19, 21	.81
Positive future orientation	6	3, 6, 10, 14, 15, 17	.86
Total	21		.90

3.2.3 교수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해 Enochs 등[31]에 의해 개발된 교사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Shin[9]이 일반적인 영유아보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문항을 수정을 하고 신뢰도 검증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교사 스스로가 본인이 교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어느 정도 믿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도구이며, 두 개의 하위요인인 개인효능감과 일반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효능감은 교사 본인이 교사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뜻하며, 일반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교수 행위가 유아들의 성취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5점 척도의 표시방법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요인명,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Number of items in each sub-factor of 'Teaching efficacy' scale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Sub-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 α
Personal efficacy	1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0
General efficacy	9	1, 2, 3, 4, 5, 6, 7, 8, 9	.84
Total	22		.82

Reverse-scored items*

3.3 연구절차

3.3.1 예비조사

유아교육과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 설문지의 내용의 이해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3.3.2 본 조사

예비조사 이후 본 조사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아교육과 재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목적을 사전에 설명한 후, 연구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취합된 설문지 중 동의서 누락 및 대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3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4 자료처리

설문지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처리되었다. 연구문제 1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의 조사를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상관분석을 실시를 통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교수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가 다름으로 인해 문항 당 평균을 살펴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표현의 인식 정도는 분노조절(M=27.29, SD=3.88), 분노억제(M=20.10, SD=5.17), 분노표출(M=19.44, SD=5.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인식 정도는 감정조절(M=27.23, SD=4.49),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M=26.44, SD=4.22), 긍정적 미래지향성(M=24.23, SD=3.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효능감의 인식 정도는 개인 교수효능감(M=43.79, SD=4.88)이 일반 교수효능감(M=34.71, SD=4.34)보다 높았다.

Table 5.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n anger-expressi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N=312)

Variable Name	Sub-factor	Mean (*M*)	*SD*	Mean score for each item(SD)
Anger Expression	Anger-out	19.44	5.34	2.43(.67)
	Anger-in	20.10	5.17	2.51(.65)
	Anger-control	27.29	3.88	3.47(.49)
	Total	67.32	8.53	2.81(.36)
Ego-Resilience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26.44	4.22	3.78(.60)
	Control of emotions	27.23	4.49	3.40(.56)
	Positive future orientation	24.23	3.68	4.04(.61)
	Total	77.90	10.02	3.71(.48)
Teaching Efficacy	Personal efficacy	43.79	4.88	3.37(.38)
	General efficacy	34.71	4.34	3.86(.48)
	Total	78.49	7.76	3.57(.35)

4.2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감의 관계

4.2.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전체 간의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among early childhood pre-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ego-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N=312)

Variables	Anger-expression	Ego-resilience	Teaching efficacy
Anger-Expression			
Ego-resilience	-.19**		
Teaching efficacy	-.27**	.58**	

**p <.0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계수는 -.19, 분노표현과 교수효능감의 상관은 -.27로 유의미한 수준(p<.001)에서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상관계수는 .58로 유의미한 수준(p<.001)에서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즉,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의 경우, 분노억제는 .48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분노조절 및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16에서 -.40 사이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분노억제는 분노조절, 자아탄력성, 그리고 교수효능감 하위요인들 간에 -.20에서 -.43 사이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분노조절은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23에서 .59 사이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23에서 .63 사이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분노표현 하위요인들 중에서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는 높아지는 반면에 분노노절과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개인 교수효감과 일반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among sub-factors in anger-xpression, ego-resilience, and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N=312)

	1	2	3	4	5	6	7	8
1								
2	.48**							
3	-.40**	-.20**						
4	-.16**	-.28**	.31**					
5	-.36**	-.35**	.59**	.39**				
6	-.19**	-.32**	.29**	.63**	.44**			
7	-.28**	-.43**	.32**	.50**	.42**	.50**		
8	-.17**	-.25**	.23**	.37**	.23**	.34**	.42**	

**p <.01

1. Anger-out 2. Anger-in 3. Anger-control 4.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5. Control of emotions 6. Positive future orientation 7. Personal efficacy 8. General efficacy

4.3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3.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전체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Table 8. Relativ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pre-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N=312)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Change	F	VIF
(Constant)	2.52						
Ego-resilience	.40	.03	11.74**	.35	.33	85.91***	1.04
Anger-expression	-.16	.05	-3.46*		.02		1.04

*p <.05, **p <.01, ***p <.001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전체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전 투입한 변인의 다중공선성 및 잔차의 독립성을 조사한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2.01이었으며, VIF 값은 1.04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전체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표 8에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분노표현은 교수효능감을 35% 정도 설명하며, 자아탄력성은 그 중에서도 3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F값 85.91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3.2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9과 같다.

Table 9. Relativ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pre-ervice teachers' the sub-factors in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N=312)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2	R^2 Change	F	VIF
(Constant)	2.46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16	.28	4.72***	.39	.27	49.38***	1.73
Anger-in	-.13	-.24	5.11***		.08		1.13
Positive future orientation	.12	.21	3.49**		.03		1.75

Anger-control	.10	.14	2.93**	.01	1,13

**p <.01

1. Anger-out 2. Anger-in 3. Anger-control 4.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5. Control of emotions 6. Positive future orientation 7. Personal efficacy 8. General efficacy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의 Table 9에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 미래지향성은 교수효능감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은 2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분노표현인 분노억제와 분노조절 첨가됨으로써 9%가 증가하여 총 39%의 설명력을 가진다. F값 49.38은 p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노표현이 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예비유아교사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간단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보통 이상으로, 분노표현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부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감정들을 스스로 잘 조절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미래의 유아교사로서 교수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분노표현 하위요인 가운데 분노표출의 경우 분노조절이나 분노억제에 비해 평균이 다소 낮은 것,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서 감정조절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라 볼 수 있으나, 개인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예견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탄력성,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예방접종을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분노나 억압된 부정적 정서들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제시해주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 및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상관에서는 분노억제와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관계가 보통 이상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개인적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가 보통 이상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교수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31]. 그러나 교수효능감을 포함하고 있는 변인인 교사효능감과 분노조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32], 분노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과 분노억제와의 관계에서는 유이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분노표출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의 하위요인들과 교수효능감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결과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흥미와 관심을 돌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과 자신이 교사로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일을 연결 짓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직이수 과정에서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교직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서 탈피하도록 돕고,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이 수용되는 교직문화가 오히려 바람직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교수효능감에 비해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분노표현, 자아탄력성 간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예비유아교사는 교실에서 유아의 성취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분노표현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 분노표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독립변인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

펴본 결과,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 분노억제,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 분노조절의 순으로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되, 관심과 흥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낙관성 훈련, 분노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연습기회 마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일회성 교육보다는 교직이나 교양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지원하거나, 대학 내 심리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가 되기 이전에 다양한 경험과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제공은 교사가 되었을 때 문제해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이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33].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유아교사의 개인 심리적 변인인 분노조절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비유아교사의 분노조절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의 분노표현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자아탄력성을 회복하여 유아교육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한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스트레스나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였을 때 분노조절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지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교수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긍정적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예비유아교사가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분노조절과 자아탄력성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표집을 확대하고 표본의 수도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분노를 조절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며 예비유아교사가 교수에 대한 신념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H. J. Kim & H. A. Seo. (2015). The meditating effect of instructional crea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in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3),* 157-170.

[2]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US: W H Freeman.

[3] B. J. Kang, & Y. S. Paik.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burn out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s in the mediating effects instructional creativity and teaching efficac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 vol. 12, no.1*, pp.145-168.

[4] S. S. Hwang. (2012). *Relationship of achievement-goal orientation to teacher efficacy and teaching commitment among childcare teache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5] S. Song. (2010). *Stu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fficacy.*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6] H. S. Kim. (2017). *The Effect of Infant Teacher's Self Elasticit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n Infant Teacher's Sense of Efficacy.*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7] M. S. Choi & D. H. Cho. (2015).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2(4),* 239-256.

[8] H. I. Hwang., J. H. Tak., & S. H. Hong. (2013). Impact of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 17(3),* 411-432.

[9] H. Y. Shin. (2004).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10] Y. R. Kwon., & Y. K. Moon. (2016). An Analysis on Meditating Effect between the Teacher Efficacy and the Job Stress with regard to Child Care Teacher's Social Support and Turnove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 16(1), 99-119.

[11] C. D. Spielberger., S. S. Krasner., E. P. Solomon.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Springer Verlag, USA.

[12] E. S. Kim. (2011).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anger express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13] J. Y. Han. (2007). *The effects of anger expression mode of high school student o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4] W. J. Kim. (2014). *Influences of anger on social self-efficacy : mediating effects of anger-control and emotional clarificati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Bucheon.

[15] H. S. Ki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Anger Management Skill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16] Y. M. Cho., & J. W. Lee. (2017).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ger Expression. *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rulum and Instruction , 17(3),* 107-124.

[17] J. Block.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18] E. C. Klohnen.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19] M. J. Park.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Child 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 J. Y. You. (2011). *The Effects Ego-resilience and Occupational Stress on Professionalism Aware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21] S. J. Lee. (2014).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22] H. S. Lee. (2003).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n stress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3] S. J. Noh., & K. N. Lee (2015).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job stress, and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on sensitivity of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3)*, 92-113.

[24] S. S. Kim. (2012).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stress coping style and ego-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3)*, 65-83.

[25] D. I. Min.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Korea.

[26] J. H. Won., & S. B. Lee.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teachers'happines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3),* 166-193.

[27] S. R. Kim., & I. S. Choi. (2017). The effects of kindergarten teachers' happiness on ego resilience and teacher efficacy.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2(1),* 29-51.

[28] D. W. Han., K. K. Chon., H. L. Chang., C. D. Spielberger.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KPA, vol.2, no.1*, pp.60-78.

[29] O. Atsushi., N. Hitoshi., N. Shinji, & K. Motoyuki.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vol. 35*, pp.57-65.

[30] L. G., Enochs. & I. M. Riggs.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fficacy belief instrument for elementary teachers", *Science Education, vol. 79*, pp.63-75.

[31] H. S. Kim.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Problem-Solving Style -Focused on Future Teachers of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533-554.

[32] Y. M. Cho. & J. W. L (2017).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ger Ex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3), 107-124.*

[33] M. J. Kim (2000).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degree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the kindergarte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강 현 영(Kang, Hyun Young) [정회원]

- 2001년 3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아동학 전공 (학사)
- 2004년 6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유아교육학 전공 (석사)
- 2011년 6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유아교육학 전공(박사)
- 2015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 교실 상호작용, 교사교육
- E-Mail : hykang@u1.ac.kr

서 현 아(Seo, Hyun-Ah) [정회원]

- 198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학사)
- 1985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유아교육전공(석사)
- 1994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 E-Mail : shyna07@hanmail.net

엄 세 진(Eom, Se Jin) [정회원]

- 1999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문학사)
- 2001년 8월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가정학석사)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디지털 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교사교육, 창의인성, 다문화교육
- E-Mail : sjeom@bdu.ac.kr